

서울지역 서민을 위한 시립실비노인요양센터 ‘시립 동부노인요양센터’ 8월 개관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나 중풍 노인을 24시간 돌봐주는 시립실비노인요양센터가 서울에 들어선다. 이미 8월초에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에 생긴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서울 곳곳에 서민을 위한 시립실비노인요양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규모는 250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대형시설이며 월 이용료는 696,000원으로 전국최대의 규모의 시설을 최저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간보호소에서 50명, 연간 90일까지 단기간 동안 요양할 수 있는 50명 규모의 단기보호소, 또한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노인요양 문제와 환자를 위한 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고액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이 시설의 입소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가구원 1인 당 월평균 소득액이 9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 중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입소에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날로 늘어가는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위한 무료시설을 2006년까지 100% 확보하고, 일반시민을 위한 실비시설은 50%까지 확보하는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수립, 시설 확충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립 중인 전문요양시설 2개소(수유, 중랑 225명)가 완공되는 2006년이면 무료시설은 수요를 100%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그동안 실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개소하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이어 서부지역인 마포구 성산동에 역사 같은 규모(250명)의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200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의 구립시설을 건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60명 정도

〈서울시내 실비 노인 요양 센터〉

	시 설 명	수용인원	개원일
시립	성동구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50명	2005.8(예정)
	마포구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50명	2006.12(예정)
구립	도봉 노인전문요양원	100명	2005.1(완료)
	동작 노인전문요양원	60여명	2005.8(예정)
	영등포 노인전문요양원	60여명	2006.12(예정)
	용산 노인전문요양원	60여명	2006.12(예정)
	노원 노인전문요양원	60여명	2006.12(예정)
	강동 노인전문요양원	60여명	2006.12(예정)
	금천 노인전문요양원	60여명	미정

의 중, 소형 구립 실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도봉구에서 도봉노인전문요양센터(100명)를 금년 1월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작, 영등포, 용산, 노원, 강동, 금천구 등에서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시설의 건립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당사자는 물론, 이들을 보호하는 일반 가정에 더욱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전망되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기를 바란다. 

